

어머니 훈계

열 자녀를 둔 어머니가 열 명의 아들, 딸을 앉혀 놓고 훈계를 하고 있었습니다.

“죄를 지을 때는 나처럼 아무도 모르게 해라. 너희들 중에 한 명만 아버지 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아버지 자녀가 아니야.”

남편이 이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.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.

“열 명 중 유일한 아들에게 내 재산 모두를 준다.”

모두 어리둥절하여 랍비에게 어떻게 하여야 할지 물었습니다.

랍비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.

“아버지 무덤으로 가서 누가 유일한 아들인지 아버지가 알려줄 때까지 울어라.”

모두가 재산을 탐하여 무덤에 가서 울었습니다.

그런데 한 아들만 가지 않았습니다.

“차라리 재산을 안 받는 것이 낫다. 한 아들만 진정한 아들이라고 아버지가 말한다면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다.”

이렇게 말하면서 가지 않은 것입니다.

랍비가 말했습니다.

“무덤에 가지 않은 아들이 진짜 아들이다.”